

채만식의 텍스트상호적 상상력 연구

황 국 명*

차 례

- | | |
|-----------------------|----------------------|
| 1. 들머리 | 2) 비극적 인식과 반영웅주의 |
| 2. 경제적 상상력과 소비하는 육체 | 3) 인식의 대개성과 완전주의 |
| 1) 궁핍 체험과 글쓰기의 근대적 조건 | 4. 세대론적 상상력과 머성년의 미래 |
| 2) 소비욕망과 소비능력 | 1) 제3세대와 닫힌 미래 |
| 3. 인유의 상상력과 반영웅주의 | 2) 장소의 정체성과 낯은 미래 |
| 1) 지식인의 존재방식과 자기풍자 | 5. 맺음말 |

1. 들머리

2000년은 백룡 채만식이 작고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실로 채만식은 낡은 가치를 통렬하게 공격하되 새로운 가치와 현실에 대해서도 냉정한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무지를 증오하되,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거나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천박한 배금사상을 공격하고, 현실에 이론적 근거를 두지 않은 관념적 계급주의를 비판했다. 그런 비판이 서술자의 과시적인 담론에너지를 통해 풍자소설에 이르거나 담론에너지의 집약을 통해 현실의 추악한 환부를 집중적으로 해부하게 된다. 채만식의

* 인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이 시간의 진폭에 의한 역사성뿐 아니라 공간의 확장을 통해 사회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도 이런 비판의식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문학텍스트와 사회적 컨텍스트를 상호관련 속에서 꼼꼼하게 따져 읽으면, 모든 작품은 스스로의 빈틈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해답으로서 제시된 모든 것이 언제나 불완전한 이치와 같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채만식이 이론 문학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빈틈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왔다.¹⁾ 이에 본고는 그의 문학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의문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그가 세계를 인식하는 개념적 도구나 창작의 중요한 질료로 삼는 범주에 관한 의문이다. 말을 바꾸어 사유방식의 기저가 되고 그의 작가적 상상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범주, 개념, 이론,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이런 범주나 비유는 독서체험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특정한 학문이나 이론, 현실경험에서 결과될 수도 있다. 채만식의 경우, 경제적 범주, 문학적 인유, 세대 혹은 산술 개념 등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 이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채만식의 현실이해와 창작에 활력소가 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채만식의 작품은 이런 범주 혹은 이들과 관련된 이론이나 담론과 텍스트상호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학외적 담론이나 개념이 문학 내부로까지 침투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이들 범주가 작가의 텍스트상호적 상상력의 기저가 된다고 보고, 각각 경제적 상상력, 인유의 상상력, 세대론적 상상력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이 항상 문학적 성공을 결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담화에 자연과학이나 의학영역의 어휘와 개념을 사용하는 일은 흔하다. 해당 영역의 전문어를 활용하거나 수식어로 덧붙이면 보다 과학적이거나 진실한 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과학이나 의학적 담론이 다른 담론보다 지배적인 힘을 행사한다는 것일 뿐, 진실과 직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전문어의 활용으로 어떤 주장이 의심할 바 없는 진리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일 것이다. 『탁류』의 의사 남승재가 이해한 인생이란 점온기, 청진기, 린트젠을 들고 살핀 <생리적인 인생>일 뿐이라고 한

1) 필자가 기왕에 지내온 질문을 줄져, 채만식 소설연구(태학사, 1998)에서 검토한 바 있다.

것은 인간의 고통이 의학적 사전일 수만은 없음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물의 경험을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텍스트 외적 범주에 기초한 채만식 상상력이 그의 세계인식과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게 되는가를 비판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2. 경제적 상상력과 소비하는 육체

1) 궁핍체험과 글쓰기의 근대적 조건

채만식은 작가 생애 전체를 통해 타락한 세계의 비속함을 비판하고 궁핍한 삶의 각박함에 괴로워했다. 특히 그는 이상과 현실의 분열에 고통을 겪고, 주관과 객관세계 사이의 간극을 극복할 수 없음에 절망했다. 유고 단편 「황금원」(1937)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전술은 매우 암시적이다.

나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무너질 듯이 나타난 별들도 산병전(散兵戰)처럼 거리에 흩어진 불빛도 모두가 궤도를 잃어서 어지러이 도는 것 같았다.

빛나는 하늘이 모든 길의 길잡이가 되고 별빛으로 길을 밝히는 시대, 자아와 세계 사이에 분열이 없고 서로간의 간극을 알지 못하는 시대는 행복할 것이다. 한 뛰어난 비평가는 이런 시대를 서사시의 시대²⁾라고 말한 바 있다. 위 인용이 보여 주듯, 채만식은 자기 시대를 별도 궤도를 이탈하는 해체시대로 파악한다. 이런 시대에는 자아와 세계가 분열되고 공동체적 연대가 붕괴되며, 인간관계는 오직 사물관계로만 파악된다. 그리하여 성스럽다거나 존경받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던 것도 팽배한 물질주의에 의해 모욕받고 훼손당한다는 것, 이제는 <황금광 시대>라는 것이다.³⁾

2) G.루카치, 소설의 이론(반성완 역, 심철당, 1985), p.29.

3) 「남행기」전집 9권. 본고는 채만식전집(창작과 비평사, 1989) 전 10권을 텍스트로

생활에 아침하는 것은 더러운 짓(「치숙」전집 7권)이라고 여기면서도, 신문사를 사직하고 난 이후 채만식은 범속한 삶과 예술간의 부조화를 더욱 통렬하게 겪게 된다. 김유정을 추도한 글에서 밥이 사람을 먹는다고 한 것처럼, 채만식은 작가 생활 내내 여러 가지 빛에 쫓리고 나날의 식량을 걱정해야 했다. 그의 작품에는 빛·전당·집행·수형할인·조지리·부도수형·경제·분배·상품·미두·투기·소비절약 등과 같은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 수탈체형, 자작영농 소지주였던 집안의 몰락, 채만식 자신의 실업 및 빈곤체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해, 그의 궁핍체험 때문에 경제적 범주나 비유가 현실이해와 글쓰기의 자료로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범주들이 그의 글쓰기에 동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채만식의 문학은 경제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겠다.

경제적 범주에 유달리 민감했던 채만식은 글쓰기조차 경제적인 비유로 이해하고 표현한다. 즉 작가는 문필에 밥그릇을 <전당> 잡힌 까닭에 저널리즘의 피에로 혹은 <두뇌노동자>이며, <2백자 1매에 25전의 품삯을 받는 쿠리> 혹은 <문학서기><문학사무원>(「향수에 번뇌하여서」, 「자작안내」, 「잃어버린 10년」 전집 9권)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비유는 근대의 소설쓰기가 처한 사회적 양상을 드러낸 것과 다르지 않다. 근대적 문학장르 가운데 특히 소설이 인쇄문화 및 인쇄자본의 대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⁴⁾ 즉 시장경제 속의 상품이 됨으로써 근대소설은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된다. 따라서 글과 이름을 팔아 생계를 도모하고 있음을 채만식 자신은 자조하고 있으나, 이는 소설의 상품 지위에 대한 인식이며, 소설의 신문연재가 증명하듯 근대세계에서 작가는 시장관계 속에서 그 위치가 규정됨을 이해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고용된 작가와 달리 무엇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만식과 같은 전업작가가 어떤 그대로 문학서기나 사무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⁵⁾

삼고 필요한 경우 원수와 쪽수만 표시한다.

4) 공연을 위한 드라마나 압축적이고 구전성이 강한 시와 달리, 소설과 신문은 인쇄자본주의 및 인쇄문화와 특별히 공명한다고 지적된다. A.Milner, *Literature, Culture, and Society*(New York Univ.Press, 1996), p.85 참조.

5) 글쓰기를 직업적 글쓰기, 패턴전에 예측된 글쓰기, 고용된 글쓰기, 부업으로서의 글쓰

그런데 자신을 품삯 받는 문화적 천민이라 자학하면 할수록, 그 이면에 문화담당자로서의 자존심이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을 두고 아녀자의 완롱물일 수 없다(「자작안내」) 하고, 밥을 먹자고 <아무렇게나><되는 대로> 쓸 수 없으며, 위대한 문학을 남기고 싶다는 열정과 그러해야 한다는 예술적 양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소설 안 쓰는 변명」전집 10권). 이같은 예술적 양심은 시장경제에 대한 작가적 반동으로 이해된다. 말을 바꾸면, 소설은 시장을 위한 소비재 즉 상품이 아니라 조건없는 선물⁶⁾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채만식은 범속한 생활과 예술적 혼, 상품으로서의 소설과 예술적 선물로서의 소설, 글쓰기의 사회적 국면과 글쓰기의 개인적 국면, 문학의 화폐 가치와 미적 가치 사이에서 분열의 고통을 경험한 작가라고 하겠다.

그런데 월리엄즈의 말로, 근대세계에서 작가는 임명예술가일 수 없지 않겠는가.⁷⁾ 종족사회의 예지자라는 특정 역할이 근대작가에게는 더 이상 제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또 <월급꾼 아니하고>도 소설을 쓸 수 있게 할 후원자도 없다. 따라서 채만식이 겪는 분열경험은 근대문학(자)의 일반적 조건일 것이다. 식민지라는 상황하에서 채만식이 이 조건을 과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조건 자체, 빛에 시달리고 구복을 걱정해야 하는 작가의 고통 자체는 근대사회의 상층지배계급 내 갈등의 산물일 수 있다. 부르디외의 말로, 그 고통은 교환분배의 비율을 두고 지배적인 경제적 자본과 피지배적인 문화적 자본이 충돌한 결과일 수 있다는 뜻이다.⁸⁾ 작가가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추문이다. 그러나 국가체제에 의한 후원을 기대하지 않는 한, 이 추문은

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고용된 글쓰기는 다른 개인이나 제도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다. M.Woodmansee, M.Osteen(eds.), *The New Economic Criticism*(Routledge, 1999), pp.9-11 참조.

- 6) 종교, 예술, 글쓰기는 시장에 의해 지배되는 상품과 달리 양도나 매매가 불가능한 선물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J.Frow, *Time and Commodity Culture*(Oxford Univ.Press, 1997), pp.124,131 참조.
- 7) 월리엄즈는 작가적 생산관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임명제도, 패턴제도, 시장제도, 탈시장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A.Milner, 앞의 책, pp.104-107 참조.
- 8) 학술 교육체제나 예술을 내소한 까닭이겠지만, 부르디외는 교육체제나 예술체제도 문화적 차별을 위한 경쟁적 투쟁이 펼쳐지는 강이며, 인데리는 문화적 자본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에 불과하다고 이해한다. A.Milner, 위의 책, pp.39-40 참조.

자본주의 하의 글쓰기의 조건일 것이다.

2) 소비욕망과 소비능력

채만식의 경제적 상상력이 지닌 강점의 하나는 경제적 비유와 범주를 통해 당대 사회에서 경제나 돈이 어떻게 인식·실감되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낸 데 있다. 「치숙」의 어린 조카에게 경제학이란 <돈 모아서 부자 되라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그게 양반이라는 「탁류」(전집 2권)의 정주사 내외는 돈이 모든 사물을 보편적 등가관계로 환원시키며, 외양과 실재의 차이를 감추는 수단임을 여실히 증거한다. 「태평천하」(전집 4권)에서 드러나듯, 고리대금은 합법적 일 뿐 아니라 윤직원에게 그것은 자선사업으로 여겨진다. 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돈의 의미 변화, 경제윤리의 급격한 변동을 암시한다. 노동가치의 척도나 교환 매체 이상으로 돈은 <마물성(魔物性)>('금과 문학'전집 9권)을 띠게 되고, 치부·권력·지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경제적 상상력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작가로 하여금 생산이나 노동보다 욕망하고 소비하는 육체를 더 주목하게 만든 데 있다. 특히 채만식이 주시한 것은 소비욕망과 소비능력의 차이이다. 「태평천하」의 윤직원의 다양한 소비대상은 그의 탐욕과 소비능력, 곧 지불능력을 입증한다. 그의 소비능력은 타인을 착취하거나 타인의 성을 소모하는 권력이다. 그러나 채만식의 문학은 대부분 소비욕망과 소비능력의 불일치, 이로 인한 고통과 파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초상점의 주인 없는 개>로 비유된 지식인의 경우, 그 고통은 거의 병적인 <공상>으로까지 치달게 된다.

P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잔돈과 지폐를 섞어 삼 원 남은 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왼편 손으로는 손가락을 꼬아가며 삼 원을 곱셈이 쳐 보았다.(…중략…)삼 원을 열여덟 번만 곱집으면 일백오십만 원이 된다. 일백오십만 원 그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매 어깨가 으쓱해졌다.('레디 메이드 인생'전집 7권, p.55)

이처럼 욕망하는 육체를 통해 채만식은 식민지의 민중적 현실에 보다 입체적으로 육박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소비하는 육체의 궁핍은 심리적 불만족이

라는 주관적 성찰이 아니라 당대의 구체적인 현실인 까닭이다.

그러나 소비하는 육체를 주목한 경제적 상상력은 다음과 같은 문제도 지닌다. 첫째, 채만식의 경제적 상상력은 작중인물을 생산이 아니라 소비의 경제적 단위로 간주함으로써 그를 정치적 실천영역에서 분리시키게 된다. 「당랑의 전설」에서 삼남 정석이 펼친 논법을 보라.

용머리 운선달네가 우리 살듯 한답니까? (...중략...) 우리처럼 남포동에다가 석웃불 켜답니까? (...중략...) 미영하고 삼배만 입지요? 뽕버름 가을까진 보리밥으루만 옥이지요? 식구라곤 있는 대루 죄다 생일을 하지요? (...중략...) 쓰는데 없는데, 이리 저리해서 생기는건 있으니깐, 되려 밀려서 성세가 늘어갈박예요! (『당랑의 전설』전집 9권, p.145)

집안이 융성하는 용머리 김선달 가족을 예로 든 것처럼, 정석의 주장은 근면 성실하고 합리적인 경영, 합리적인 소비, 검소한 자기관리와 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라지는 그림자」(전집 9권)의 인원의 말처럼 처음부터 빚을 지지 말거나 <못찾게 되었으면 그만>이다. 이런 점에서, 인원과 정석의 합리적 계산적 사고는 인간관계 및 삶의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부르조아의 이데올로기, 즉 법적 합리성의 권위를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상상력은 사회적 모순의 극복보다 소비능력의 확대를 강조하게 된다. 채만식의 작중인물에게 소비능력의 확장은 시장접근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데 있으며, 그 방법은 시장가치가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룬펜 지식인들이 손에 익힌 기술이 없음을 탄식한다거나 『탁류』에서 고아인 승재가 의사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계봉이가 의학전문이나 약학전문학교를 다녀 <버젓한 기술>을 얻고자 한 것이 그 예가 된다. 특히 가부장제의 유습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 기술을 습득하려는 계봉이는 매우 기민한 현실감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매혹은 얻어질 결과의 안정성을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말하자면, 계봉이는 식민지하의 경제구조를 견고하고 예견가능한 것으로 낙관한다고 하겠다.

셋째, 채만식의 경제적 상상력은 인테리의 상향이동의 좌절감을 강조하게 된다. 인테리의 빈궁을 다룬 작품에서 채만식은 인도주의적 귀농운동의 추상성을 비판한다. 또 배워야 산다는, 사회적으로 공언된 신념과 배웠기 때문에 <명일>

이 없다는 현실(『명일』전집 7권)을 반립시킴으로써 이상과 현실이 균열하는 근대적 삶의 불모스러움을 추궁한다. 물질적 조건이 지적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 지식인의 불만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식인을 <흡수 소화시킬 토대>를 문제삼으면서 <인류문화의 건설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는 <일만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주인>의 상투적인 헛청관이라고 할 때(『단장수삼제』전집 9권, p.485), 채만식 소설의 지식인은 자본주의 사회질서 내의 상향 이동에 실패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레디메이드 인생』의 P가 말하듯,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박애적 이상주의와 같은 사회적 <헌신>은 공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좁더 남의 눈에 띄며 좁더 재미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야심>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다(전집 7권, p.56). 결국 채만식 소설의 지식인들은 특권에 대한 내면적 죄의식이나 개인적 성취를 향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그 불가능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할 수 있다.

3. 인유의 상상력과 반영웅주의

1) 지식인의 존재방식과 자기풍자

채만식의 글쓰기에 활력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범주는 신화나 문학 속의 인물유형들이다. 프로메테우스, 동키호테, 햄릿과 같은 인물이 그런 예에 속한다. 이들은 채만식의 소설, 희곡, 수필 등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며, 생활과 실천에 관한 그의 의식을 반영하는 핵심적 비유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채만식의 문학은 인유의 상상력에 기초한다고 하겠다.

인유의 상상력은 특히 지식인의 존재방식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된다. 그들은 한편으로 추상적 이념과 구체적인 목전의 삶의 괴리에 직면하고, 다른 한편 <사상과 행동이 유리>되고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자기분열(『명일』「패배자의 무덤」)에 가책을 느낀다. 전자가 사상과 동떨어진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사상과 실천의 괴리 문제에 연관된다.

자전적인 성격을 띤 『생명의 유희』(전집 6권)에서 작중인물은 자신이 비생산

적인 착취계급으로 계급 멸망의 선두에 있음은 역사적 필연이나, 먹어야겠다는 기아의식은 모든 계급의 <공통의 욕망>이라고 말한다. 국가상실기였기에 국가 개념보다 선행하는 계급개념에 지식인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면⁹⁾, 채만식은 계급보다 선행하는 인간의 근본욕구를 제시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이 절대공핍한 희소성의 세계라면, 먹고살아야 한다는 본원적 욕구는 육신을 지닌 인간의 동물적 운명에 대한 전체적 진실¹⁰⁾이라 하겠다.

그러나 생존의 절박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윤리적 방법뿐 아니라 무엇할 것인가라는 실천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실천은 지식인의 존재 근거를 묻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양심적인 지식인은 <저희미암> 속에서 <시일(是日은 조상(弔喪)고?)>를 외치고 지구를 태양을 향해 던져버리고 싶다는 극단을 보인다(「인테리화 빈대떡」전집 9권, 「저희미암의 발원」전집 10권). 이런 극단의식은 당시 채만식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데, 여기서 채만식의 인유의 상상력은 그의 문학적 영웅이라 한 인물유형들을 불러낸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프로메테우스이다. 지식인을 중도 속도 못되는 요절마요 묶여 있는 프로메테우스라고도 한 채만식은 희곡 「제향날」에서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킨다.

프로메테우스 (눈이 내릴 때에) 오오 그래도 나는 의를 이루었노라, 뉘우치지 아니하노라.(「제향날」전집 9권, p.129)

프로메테우스의 절규는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의 압도적 우월감을 드러낸다. <영겁의 고초>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운명을 단호하게 긍정함으로써 자기해체를 경험한다고 하겠다. 프로메테우스를 인유함으로써 채만식은 작중인물 상인의 미래행위를 암시한다.

9) 김운식, 한국근대작가논고(일지사, 1974), pp.448-450.

10) 전투에서 수많은 동료와 부하를 잃은 오디세우스의 일행이 배불리 먹고 잠을 자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죽은 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간의 전체적 진실에 육박한 것이라 해석된다. L.Guilhamet, *Satire and transformation of Genre*(Univ. of Pennsylvania Press, 1987), p.142. 두인도에 표착한 로빈슨 크루소가 무엇보다 생활필수품을 꺼내온 것(「문학과 해석」전집 10권)을 들어, 채만식은 생활의 문학이 곧 리얼리즘문학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아무런 매개없이 역사적 필연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상인이 자기운명의 지배자가 되리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이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기층민중과 연대하여 적대적인 투쟁에 나서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식민지하의 경험현실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적 실천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¹¹⁾ 채만식의 지식인들이 생각과 행동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에 절당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²⁾

이런 맥락에서, 채만식의 인유의 상상력은 또 다른 문학적 영웅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은 동키호테와 햄릿이다. 채만식의 작품에서 이들은 지식인의 자기 풍자의 대표적인 인물유형이다. 채만식이 자신의 유언으로까지 삼은 동키호테의 모습은 「소망」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아거둔 모름지기 말복날 등복을 떨쳐 입고서 종로 네거리 한복판에 가 버티고 서서 볼지니…… 외상 진 짜전가게 앞을 확보해 볼지니……(「소망」 전집 7권, p.336)

이런 동키호테적 광기에 대해 작중인물은 행복이 아니라 싸움이라고 말한다. 이를 곧두선 세상에 대한 곧두선 방식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채만식의 인유의 상상력 속에서, 동키호테의 맹목은 관념적 프로메테우스, 즉 현실적 근거가 없는 영웅주의에 대한 풍자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패배자의 무덤」(전집 7권)에서 <프로메테우스의 후손>을 자처하는 종택은 기차에 돌진함으로써 육체를 처분한다. 그러나 그의 자살은 신성을 본 자의 비극적 죽음일 수 없다. 그는 진리를 살렸으되 몸을 죽였고 따라서 그 진리는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그의 이야기는 <동키호테의 후일담>이며 그는 <패배자>이다.

11)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라면, 그 판재은 신(神)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 앞에서는 기적만이 현실성을 갖기 때문이다. G.루카치, 영혼과 형식(반성원·심희섭 역, 심철당, 1988), pp.259-262. 그러나 자신의 불운에도 불구하고, 신의 충실한 종복이 되기보다 바위의 종이 되겠다고 한 프로메테우스를 찰 맑스는 철학의 목록에서 가장 출중한 성인이요 순교자라고 말한 바 있다. 마르크스·엔겔스, 마르크스·엔겔스의 문학예술론(김영기 역, 논장, 1989), pp.214-215.

12) 이 시기의 심경을 채만식은 김교환의 시 「제5운명송」을 빌어 표현한 바 있다. 즉 진리는 이미 낡은 전설이 되었고, 살았다는 은총이 어깨를 누른다는 것이다 (『삼월 창작개관』전집 10권).

다른 한편, 햄릿의 고뇌는 속박된 프로메테우스, 즉 사회모순에 대처하지 못하고 생존 욕구에 무기력하게 굴복한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된다. <햄릿 같은 '오늘'>('소설 안 쓰는 변명') 속에서 채만식의 인테리는 자책과 변명으로 방황한다. 그들은 속물들의 타락한 세계에 대한 회의적 지성을 소유하고 있으나 진리를 행동으로 옮길 능력이 없다. 그들은 진리에 눈을 감음으로써 몸을 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살았다는 은총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이런 그들에게 자비나 함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인유의 상상력 속에서 기차에 돌진하는 동키호테형 인물이 육체의 소멸과 정신의 생존을 의미한다면, 저희미암 속의 햄릿형 인물은 정신의 죽음과 육체의 삶을 암시한다. 전자가 역사적으로 주변적이면서 정신적으로는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의 자존심을 뜻한다면¹³⁾, 후자는 살기 위해 참 진리를 부정하는 지식인의 수치심을 드러낸다. 이 양자의 상징적 의미를 통합하는 프로메테우스는 따라서 승리자일 수도 있고 패배자일 수도 있다. 동키호테와 햄릿의 결함을 상징할 때 몸과 진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패배자이며, 동키호테와 햄릿의 장점을 앞세우면 양자를 모두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승리자이다.¹⁴⁾ 채만식의 지식인에게 전자의 의미가 실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몸과 진리, 삶과 정신을 혁명적으로 통일할 근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인의 자기풍자는 무기력에 대한 가장 작가다운 고백이라 할 것이다.

2) 비극적 인식과 반영웅주의

동키호테의 인유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햄릿이 무기력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제 채만식의 문학적 영웅 프로메테우스가 나아갈 방향으로 무엇이 남아 있는가? 그것은 추상적 이념이나 당위적 가치보다 벌속한 경험

13) 채만식은 포은 정몽주가 생명을 보전했더라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하고 다소 냉소적인 불움을 던진다. 포은과 달리, 여말에 스스로 바위에 부딪쳐 절사한 손등과 하경이 더 장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등경암」전집 9권, pp.620-621.

14) 투르게네프에게 동키호테와 햄릿은 행동가와 지식인을 대표하는 극단적인 두 유형으로 각각 도덕적 순수와 어리석음, 광범위한 인식과 무기력이라는 미덕과 결함을 지닌다고 이해된 바 있다. R.W.Mathewson, *The positive hero in Russian Literature*(stanford univ. press, 1974), pp.105-109 참조.

적 삶,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면밀하게 살피는 일이다. 시간적 체험의 지평 내에 있는 삶은 추상과 비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전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옥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떨어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처숙』전집 7권, p.275)

그러니까 <세상물정>이란 기대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 사이의 낙차를 암시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가정과 그 실현 불가능성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채만식은 경험에 대한 비극적 시각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채만식에게 비극적 시각이란 비록 범속한 것이긴 하지만 현실은 결코 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만식은 고리키의 말을 빌어 문학은 시대의 <희비극>을 담는다 했고, <현실적 추>를 문학적 미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념적 계급문학을 비판하며(『자작안내』), 명랑하고 건설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국민문학이 <비극>을 허용하지 않는다(『국민문학의 공작정단회』전집 9권)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비극적 부정적 시각에서 채만식의 작가적 태도는 행동을 유발, 변화시키기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우위에 둔다고 하겠다.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론(예를 들어, 지식인의 농촌 계몽운동), 추상적 관념으로 현실을 조제하려는 태도(예를 들어, 명일의 광명을 강제하는 계급투쟁)를 일관되게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을 터이다. <진실과 현실을 억지로 속이고 꾸>밀 수 없다는 것이다(『조선문단근상』전집 10권).

꾸며낸 영웅적 급진성에 대한 채만식의 비판은 다음 두 가지를 이유로 삼는다고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현실적 토대를 결여한 영웅주의인 까닭이다. 현실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을 꾸며낼 수 없다, 즉 <역사를 앞당겨 쓰지는 못>(『현인군의 몽을 계함』전집 10권)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만식은 동반자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카프 일원되기를 스스로 부족해 하며 문학적 완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말을 바꾸면, 정치적 덕성이 문학적 탁월성의 원천일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비록 부정적인 것이라도 사물의 존재방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진실은 진실>('위장의 과학평론'전집 10권)인 까닭이다. 이런 의미에서, 채만식의 소설은 더 가치로운 삶보다 더 많은 삶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적 목표는 부정, 현실적 추, 비극을 통한 생활세계의 회화적 진실에 있다고 하겠다.

둘째, 그것은 변혁과정의 비인간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성의 힘을 과신하거나 자신의 특정한 신념에 사로잡힌 인간은 필요하다면 살인도 기꺼이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범죄를 도덕적으로는 사악하나 시적으로 선한 초월적 범죄라고 할 수 있으나, 변혁의 이상을 파괴하는 반이성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프로메테우스적 인간의 초월적 범죄에 대해 채만식의 지식인들은 두려움을 드러낸다.¹⁵⁾ 라스콜리니코프의 인유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당쟁이 노파를 내리찍는 장면을 생각하고 오싹 등어리가 추워 눈을 감았다.('명일'전집 7권, p.158)

먹어야겠다는 기아의식에도 불구하고, 도둑질도 할 수 없는 인테리가 테러리스트로 변신하기란 불가능할 터이다. 몸을 움직이는 이 실천은 일상의 평균적 윤리나 의무 심지어 신의 율법에서조차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회소성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테리는 내면적 죄의식, 개인적 윤리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이들이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급진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3) 인식의 매개성과 완전주의

인유의 상상력이 작중인물에 대한 풍자에 귀결되는 것처럼, 채만식 문학의 주조음은 아이러니이다.¹⁶⁾ 채만식의 작품에서 이런 구조적 아이러니가 없지

15) 프로메테우스는 수단으로서의 한시적 인간이미지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을 역사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대의를 위해 선악을 넘어서 산다. 그러나 러시아 자유주의작가는 투쟁의 야수성이 혁명의 이상을 정반대의 것으로 왜곡시킨다고 비판한다. R.W.Mathewson, 앞의 책, pp.143-144, 148-153 참조.

16) 김윤식 편, 작가론총서 채만식(문학과 지성사, 1984), p.19.

않지만¹⁷⁾, 특히 그의 아이러니는 수사적인 측면이 강하다. 『탁류』에서 한 예를 보자.

초봉이는 내일 도래면 서울로 간다고 모녀가 들어서 옷을 새로 하네 어찌네 들이 서둘고 있다. 그거야 가장(家長)이요, 부친 된 사람의 위엄으로 가지 못하게 막자면야 못할 것은 없다(……고 정주사는 생각한다). (『탁류』 전집 2권, p.128)

가장이요 아비로서의 위엄을 빌어 초봉이의 서울행을 막을 수도 있다는 문맥(a)에서는 가부장적 권위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괄호(b)에 의해서 조롱되고 파괴된다. 이와 같은 언술은 (a)가 환기하는 어떤 기대를 (b)에 의해 전복시키는 것이라 하겠고, 그 결과 (a) 문장에 있는 모든 권위와 중량감이 제거되면서 정주사는 회화화된다. 채만식의 소설언어는 이처럼 대립적 의미의 낙차를 이용한 희극의 원리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희극적 언어의 특별한 가치는 추를 통해 미를, 허위를 통해 진실, 외양을 통해 내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¹⁸⁾ 부정·허위·추를 통한 긍정·진실·미의 인식은 매개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진실은 직관적 추상적으로 통찰될 수 없고, 허위의 인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희극의 원리는 채만식의 문학을 선동형식이 아니라 인식형식으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인식의 매개성은 서술자에게 인식상의 천진소박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요구한다. 채만식이 비현실적 영웅주의를 배격하고 있거

17) 어떤 의미에서, 근대소설의 구조원리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자아가 세계가 반목하는 근대사회에서 작중인물은 그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물의 욕망과 성취간의 이런 반어적 낙차를 '질이 시작되자 여행이 끝난다'고 경식화하기도 한다. G.루카치, 소설의 이론, p.94.

18) 가면을 벗겨 위선을 폭로하는 아이러니는 삶의 가장 낮은 매개체이다. D.L.Patey, *Probability and Literary Form*(Cambridge Univ.Press, 1984), p.208.

19) 러시아 급진비평가들이 삶을 변화시킬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작품 내의 결론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이로써 독자의 반응을 통제하고자 하였다면, 러시아 자유주의 작가들은 삶에 관한 인식을 강조하여 현상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유발하는 풍자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해진다. R.W.Mathewson, 앞의 책, pp.91-92 참조.

니와, 반어적 서술자는 특정한 대의나 목적에 직심적으로 헌신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드러낼 수 없다.²⁰⁾

채만식의 회극적 언어는 일차적으로 서술자와 작중인물간의 대결과 거리를 의미한다. 판소리와 텍스트상호적 관계에 있는 『태평천하』의 반어적인 지문도 마치 판소리의 아니리처럼 작가(서술자)와 작중인물간의 대립상태를 보여준다. 그런데 앞서 살핀 정주사의 권위를 전복하는 괄호는 독자가 정주사의 생각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채만식의 반어적 언어에서 독자는 작가(서술자)와 한편이 되어 작중인물과 맞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서술자의 언술이 반어적이므로, 독자는 서술자(작가)와 항상 불안한 긴장관계 속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독서경험에 대해 작가가 반어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독자는 작품에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게 접근해야 하며 작중인물과의 동일시를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탁류』에서 절망에 빠진 초봉이가 형보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자살을 성취하겠다고 계획한 경우를 보자.

이것이 일시 절망되던 자살이 서광을 발견한 경위다. 독단이요, 운산(運算)은 맞았는데 답(答)은 안 맞는 산술이다. 아마 식(式)이 틀린 모양이었었다.(『탁류』 전집 2권, p.447)

이런 진술은 형보의 제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해도 초봉이의 생각을 조롱하는 태도라 하겠고, 따라서 독자는 초봉이의 행위를 희생자의 무죄한 정당방위로만 볼 수 없게 된다.²¹⁾ 또 19장에서 승재가 아직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

20) 임화는 현실에 직면적으로 대할 수 없는 소시민의 소극적 부정을 풍자문학의 한 계로 보았다. 임화,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조선의 시문학」(조선중앙일보, 1934. 1.1-12)

21) 이해득실을 따지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초봉이를 필자는 뉘엿뉘엿한 희생양이라 하고, 양심의 거리낌없이 제거되는 형보를 은폐된 희생양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졸저, pp.80-89, 270-278 참조. 이런 해석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김경수는 식민지하에서 작중인물 대부분은 필연적인 희생양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작중인물이 작품의 중심에 놓이는가와 그가 희생양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희생양의 의미도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경수, 「식민지 수탈경제와 여성의 물화(物化) 과정」(『작가세계』, 2000년 겨울호), pp.436-437 참조.

리라는 초봉이의 생각을 <정당한 오해>라고 한다거나, 초봉이가 승재에게 애원하는 <明日>을 <거절하는 눈치를 보일 용기>가 없어 마치 못해 약속함으로써 승재는 궁극적으로 초봉이의 의식을 초월한다. 그러나 승재 또한 계산된 신증함을 지니고 있어 비판대상이 된다. 회생하는 초봉이를 동정하면서도 <정조적으로 순결성을 잃어버린> 초봉이에 대해 승재는 세속적이고 이기심에 근거한 계산을 하고 있다. 사실 『탁류』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서로 동상이몽, 상반된 해석과 타산에 몰두한다. 이는 독자에게 비판능력을 야기하는 기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명일>에 대한 약속도 독자에게 도덕적 문제라기보다 인식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자는 기민하게 희망과 현실 사이의 심연을 깨닫고 진정한 상황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독자는 언제나 아이러니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인유가 작가에 따라 특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채만식의 인유의 상상력은 서술자의 전지적 논평을 통해 작품의 반어성에 대한 해석을 통제한다. 따라서 독자에게는 아이러니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다.²²⁾ 작가가 판단의 전능한 권위를 장악하고 있을 때, 아이러니는 풍자에 접근하게 된다. 작중인물과의 대결적 거리뿐 아니라 독자와의 잠재적 거리 때문에, 채만식의 언어는 좌충우돌식 풍자를 지향하게 된다. 좌충우돌식 풍자란 모든 인물에 대해 초연하고 모든 계급에 대해 냉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며, 루카치의 말로 모든 인물과 대상에 대해 냉혹하고 추상적인 우월성을 지니는 것과 같다.²³⁾ 따라서 채만식의 인유의 상상력은 불완전한 모든 것을 조소하는 완전주의를 꿈꾼다고 할 수 있다. 지구를 태양에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 완전주의자는 지구를 들어올릴 지렛대의 지점을 현실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22) 전통적 반어에서는 작가가 그 의미를 통제하고, 자학적 반어에서 작가는 텍스트의 절대적 주인이라는 역할을 포기한다고 말해진다. P.Steiner, 'The Praxis of Irony', R.L.Jackson, S.Rudy(eds.), *Russian Formalism*(New Haven, 1985), pp.40-42 참조.

23) G.루카치, 소설의 이론, p.96.

4. 세대론적 상상력과 미성년의 미래

1) 제3세대와 닫힌 미래

채만식의 작품에서 삼대·삼형제·3막·제3기·제3부·세 길·세 정신 등 세대론적 산술적 개념이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생물학적 귀속성과 무관한 자리에서, 세대 개념은 다른 세대와의 변별성을 강조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문화적 경험, 역사와 삶을 향한 태도의 차이 등이 세대의 변별적 자질이다. 그러니까 세대는 특정한 시대의 물적 기반과 정신적 풍토에 속하면서 자기 세대의 역사적 특수성이나 운명의 독자성을 표나게 드러내는 문화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數)나 세대 개념은 변화와 상대성에 지배되는 시간과정과 복잡한 공간관계를 표상하는 데 유효하다. 채만식의 경우, 특히 3이라는 산술적 범주는 그가 현실을 인식하거나 반영하는 체계적인 수단이 라 할 수 있다.²⁴⁾ 이와 같은 산술적 사유방식을 산술적 상상력 혹은 세대론적 상상력이라 하겠다.

채만식의 세대론적 상상력에서 삼대가 등장할 경우, 그것은 역사의 세 기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삼대 모두 긍정적으로 그려질 때, 이들 세대는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으로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대의에 헌신한다는 통일된 행위를 보인다. 『제향날』, 『여자의 일생』이 이런 예에 속한다. 그러나 조·부·손 삼대나 3형제가 동시대에 거주할 경우는 세대간의 갈등과 형제간의 반목이 특히 부각된다. 이 경우 숫자 3은 동시대의 혼탁한 양상 또는 다양한 가치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평천하』, 『사라지는 그림자』, 「낙일」, 「이런 남매」, 「당랑의 전설」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채만식의 세대론적 상상력에서 흥미로운 것은 삼대의 경우 손자 곧 제3세대에, 3형제의 경우 3남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태평천하』의 종학, 「제향날」의 상인, 「낙일」의 상천, 「사라지는 그림자」의 인원 등이 그러하다. 이

24) 수학자 김용운이 수학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체계화된 수단이라 한 것처럼, 수(數)는 인생을 반영하는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루돌프 아른하임, 시각적 사고(김정오 역, 이화여대출판부, 1982), p.291 참조.

둘 제3세대가 1902년생인 채만식에 가깝다는 점에서, 채만식은 자기세대의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채만식과 같은 세대인 지식인의 무기력과 절망이 확인된 것처럼, 제3세대의 나아갈 길은 폐쇄되어 있었다. 채만식의 작품에서 이들 세대의 인물이 작품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만식의 세대론적 상상력은 가족 밖의 미성년 세대를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일곱 살에 고아가 된 「치숙」의 조카처럼, 어린 세대도 성인 세계의 타락한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 결과, 채만식의 세대론적 상상력은 미래로 열릴 수 없게 된다. 한 예로 「레디 메이드 인생」을 보자. P는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어릴 때부터 <생일(勞動)>을 배우는 것이 낫다며 어린 자식을 인쇄소에 취직시킨다.

“거 참 도를 일어요…… 우리 같은 놈은 이 것을 해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학교도 아닌 마친 자제를 공장엘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판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레디 메이드 인생」전집 7권, p.74.)

직접적인 육체노동에 대한 강조는 배워야 산다는 계몽운동의 추상성, 생산적 노동을 사회적 약자의 징표로 여기는 지식인, 식민지 자본주의 지배 및 우민화 교육 등에 대한 조롱과 비판을 함축한다. 그러나 제도교육에 대한 반항은 역설적으로 그 세대에게 특정한 유형의 노동을 예비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계급 관계를 재생산하는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 필요에 기여하게 된다.²⁵⁾ 물론 동일한 상황을 다룬 「명일」에서 자식을 노동자로 만드는 것은 벌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새세상에서 쓰일 인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되어 있다(전집 7권, p.150). 그러나 <새세상>이 사회주의를 암시한 것이라 하더라도²⁶⁾, 어떻게 그

25) 상하이동 가능성에 저항하는 청년노동자들의 반학교운동이 오히려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J.Storey, *Cultural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Arnold, 1999), p.164 참조.

26) 이를 두고, 하정일은 노동자에 대한 작가의 깊은 신뢰를 드러낸, 성찰된 사회주의로의 지향이 있다고 평가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하정일, 「채만식 문학과 사회주의」, 문학과 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소명출판, 1999), pp.91-92.

런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 세대조차 미래의 상징이라 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 작품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반어적 어조²⁷⁾는 역설적으로 노동에 대한 폄하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 반어란 상황이 동의 가능성이 막힌 지식인의 자기혐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채만식의 세대론적 상상력이 왜 이런 결과를 낳는가? 그것은 그의 상상력 속에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역사주체에 대한 확신이 부재한 탓이다. 이는 문학행동의 선동이 아니라 현실의 인식으로 간주한 사실과 정확하게 부합된다.

2) 장소의 정체성과 낯은 미래

세대론적 상상력은 채만식의 작가생활 내내 창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본질을 찾아 여행하는 이야기를 근대소설의 규범적인 내용으로 본다면,²⁸⁾ 가족 내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 작중인물은 근대소설의 주인공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레디 메이드 인생』의 어린 아들이 노동자가 되는 것처럼, 가족의 역할에서 벗어난 개인이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사회의 청년으로 변신할 때 그는 소설주인공에 갇힌다.²⁹⁾ 그는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과 조우하는 길 위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길 위에 놓인 작중인물은 작가의 미래감각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가 무엇이 될 것인지 미리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유작 『소년은 자란다』는 흥미롭다. 국권상실을 아비상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호는 귀국하면서 아버지를 잃게 된다. <잃어버린 아버지>는 주체적인 해방이 아니라는 작가의 날카로운 시대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를 모두 잃은 어린 영호 남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해방전 작품의 소년들이 돈을 벌거나 시장가치가 있는 기술을 얻고자 한 것과 달

27) 우한용은 식민지 현실과 교육에 대한 반어적 비판이라 해석하고, 이선영은 자조적이고 반어적인 울림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한용, 채만식소설 담론의 시학(개문사, 1992), p.256. 이선영, 「창조적 주체와 반어의 미학」, 문학과 사상연구회 편, 앞의 책, p.28.

28) G.루카치, 소설의 이론, p.103.

29) 아들이 아니라 청년일 때, 그는 세대간의 수직적 연속보다 세대 내의 수평적 관계 속에 놓인다. F.Moretti, *Atlas of The European Novel*(Verso, 1998), p.65.

리, 영호는 돈 대신 공부를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채만식의 세대론적 상상력은 미성년 세대를 통해 민족의 희망을 암시하고자 했을 터이다.

그렇다면, 그 희망의 정체는 무엇이며, 영호는 어떤 미래에 도달할 것인가? 『소년은 자란다』는 미완의 장편이기에 이 물음에 충분히 답할 수 없고 다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할 뿐이다. 먼저 영호의 부모가 간도로 가게 된 연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탈향은 토지에서 유리된 빈농층이 남부여대하고 살 길을 찾아 이국을 떠 돈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다. 그들이 간도로 떠난 것은 극히 사적인 사유 때문이다. 즉 부정한 아내의 가출과 포악한 남편의 학대를 못 이겨 이들은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향 떠남은 행운이거나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된다.³⁰⁾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 되어서도 영호의 어머니에게 고향은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었고, 아버지 또한 자신의 고향에 갈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훈육한다. 그들에게 고향은 지워져버린 장소인 셈이다.

이 '지워버린 고향'이 장차에 어린 영호 남매로 하여금 불행을 더 크게 할 것이 줄이야 아무도 짐작인을 못하였던 노릇이었다. (『소년은 자란다』전집 6권, p.316)

부모를 잃었다는 점에서 영호는 그의 성장과정을 통제할 제보적 엄숙성을 결여한다. 또 영호 남매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한 기차역은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합집산하고 삶의 다양한 층위가 겹쳐놓이는 장소이다. 따라서 역은 고향과 같은 국지적 장소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하고 있는 장소의 정체성이나 폐쇄적인 인정세계를 구성할 수 없다. 폐쇄적인 국지적 맥락에서 해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차역은 일종의 비공간(nonspace)이다.³¹⁾ 이는 귀국과 함께 아비

30) 태생지를 떠나는 동기는 다양하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행운인 경우, 살던 곳을 의도적으로 부정할 결과 추방되는 경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도피의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F.Moretti, *The Way of the World*(Verso, 1987), pp.202-204 참조.

31) 비공간, 비장소란 같은 척도로 잴 수 없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층위나 상태가 동시에 연결되고 유동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쇼핑몰, 고속도로, TV, 관광지, 역전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 이런 비공간은 쉽게 서로를 알아보는 폐쇄적 국지적인 장소와 다르다. J.Frow, 앞의 책, pp.39, 75-76 참조. 비공간은 푸코가 근대의 특징적인 공간으로 지칭한 heterotopia와 흡사하다. 위계적이고 고정된 공간이 아

(나라)를 잃어버린 영호에게 민족지적 장소개념이 있을 수 없음을 증폭시켜 드러낸다고 하겠다.

아이의 성장과 완성을 도울 부성적 권위가 부재하고, 국지적 장소의 정체성으로부터 해방된 영호는 개체로서의 자기정체성과 운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한 개인의 자기형성에서 지역이나 장소와의 영향관계가 극도로 축소될 때, 그의 성장은 물질에 매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어린 영호는 구절을 한다거나 <차표 야미 장사>와 같은 <속 검은 짓>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작중인물을 타락한 성인의 가치와 연관짓지 않으려는 세대론적 사유의 주관적 의욕을 드러낼 뿐이다.³²⁾

농토에 의존해 있던 아버지의 직업을 지향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호의 삶은 더욱 예견불가능하다. 영호는 이질적인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양립하고 있는 공간을 탐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돈보다 배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영호는 각박하고 험난한 세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빨리 성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환멸체험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다가, 막상 실제로 그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본 즉, 그와 같이 하나도 훌륭한 것이 없는 세상이었다. 추앙할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세상이었다. 도무지 이치에 어그러지고, 경우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다. 『소년은 자란다』전집 6권, p.400)

<훌륭한 사람의 세계>가 결코 훌륭하지 않다는 환멸체험에서 영호는 삶에 있어 신중한 관찰과 인식이 필요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말을 바꾸면, 이제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는 소년다운 천진성을 유지할 수 없다. 영호는 이 위험한 세계를 가능한 빨리 통과해야 하며, 이는 청년 혹은 젊음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에서 미성숙한 자는 살아남기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닌 헤테로토피아는 단일한 현실적 장소에 양립불가능한 여러 공간과 층위를 병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W.Soja, *Postmodern Geographies*(Verso, 1989), pp.16-18 참조.

32) 이런 점에서 『소년은 자란다』는 작가의식이 이완된 소설적 실패작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우한용, 앞의 책, pp.100-112 참조.

부성적 권위와 장소의 정체성을 결여한 영호의 사회화는 바로 사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³³⁾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이다. 아버지의 당나귀를 찾아나섰다가 왕국을 발견하는 것처럼, 영호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길에서 자본주의를 만날 것이다. 그는 그 세계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욕망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세계는 이미 낡은 미래가 아닐 것인가.

5. 맺음말

문학 밖의 다양한 개념과 범주들이 문학과 텍스트상호적 관계에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범주나 개념은 작가가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고 창작에 활력을 불어넣거나 질료가 되기도 한다. 본고는 이를 텍스트상호적 상상력이라 하고 채만식의 경제적, 인유적, 세대론적 상상력이 그의 현실인식과 창작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수탈체험 및 자신의 빈궁체험과 연관되어 채만식은 다양한 경제적 범주에 유달리 민감했고 이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경제적 상상력을 통해 그는 근대소설의 상품적 지위를 인식하나 소설이 시장의 소비재일 수 없다는 예술적 양심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그는 문학의 화폐가치와 미적 가치 사이에서 분열을 경험한 대표적 작가이다. 채만식의 경제적 상상력의 문학적 이점은 그것이 경제와 돈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을 예각적으로 드러내고, 소비하는 욕망을 주목함으로써 식민지의 민중적 현실을 입체적으로 그리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경제적 상상력은 작중인물을 정치적 실천영역에서 분리시키고 소비능력의 확대를 강조하며 상하이동에 실패한 지식인의 좌절을 강조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33) 사회적 권위가 내면화된 것이 초자아이다. 초자아를 생산하는 중요 제도가 가족이다. 그런데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몰락하던 사회가 직접 개인을 사회화시키게 된다고 한다. D.Kellner, *Critical Theory, Marxism, and Modernity*(Johns Hopkins Univ.Press, 1989), pp.41-43, 63-64 참조.

둘째, 채만식은 문학과 신화 속의 여러 인물을 인유하여 지식인의 생활과 실천에 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채만식의 인유적 상상력은 프로메테우스를 그의 문학적 영웅으로 삼지만, 현실에서 프로메테우스적 실천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그는 동키호테와 햄릿을 인유하게 된다. 이 양자는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지니지만, 당대 지식인들에게 몸과 진리를 모두 상실한 패배자의 의미가 실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결과, 채만식은 비약을 허용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주목하면서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비인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급진적 영웅주의를 비판하게 된다. 인유의 상상력이 작중인물을 풍자하듯, 채만식의 소설언어는 아이러니에 지배된다. 그의 회극적 언어는 인식의 매개성을 강조하며, 그의 문학을 선동형식이 아니라 인식형식으로 규정한다. 또 회극적 언어는 항상 작가(서술자)와 작중인물, 작가와 독자의 대결국면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채만식의 인유의 상상력은 완전주의자의 좌충우돌식 풍자로 표상된다.

셋째, 상이한 시간과정과 복잡한 공간영역을 인식하고 형상화하기 위해 채만식은 세대론적 산술적 범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 그의 세대론적 상상력은 수직적 세대연속에 있어 마지막의 제3세대와 세대간의 수평적 관계에 있어 3남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러나 채만식과 같은 세대인 이들에게 당시의 지식인들처럼 나아갈 길은 폐쇄되어 있다. 그들이 작품의 말미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대론적 상상력은 가족 밖의 미성년 세대를 주목하나 그들 역시 미래의 상징이 되지 못한다. 해방 후의 미완성 장편에서 채만식은 어린 소년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하고 있으나, 부성적 권위와 장소의 정체성을 결여한 소년이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현대자본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채만식전집(창작과 비평사, 1989)
- 김경수, 「식민지 수탈경제와 여성의 물화(物化) 과정」(『작가세계』, 2000년 겨울호)
-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논고(일지사, 1974)
- 김윤식 편, 작가론총서 채만식(문학과 지성사, 1984)
- 문학과 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소명출판, 1999)
- 우한용, 채만식소설 담론의 시학(개문사, 1992)
- 임 화, 『33年을 통하여 본 현대조선의 시문학』(조선중앙일보, 1934.1.1-12)
- 황국명, 채만식 소설연구(태학사, 1998)
- 루돌프 아론하임, 시각적 사고(김정오 역, 이화여대출판부, 1982)
- J.Frow, *Time and Commodity Culture*(Oxford Univ.Press, 1997)
- L.Guilhamet, *Satire and transformation of Genre*(Univ.of Pennsylvania Press, 1987)
- R.L.Jackson, S.Rudy(eds.), *Russian Formalism*(New Haven, 1985)
- D.Kellner, *Critical Theory, Marxism, and Modernity*(Johns Hopkins Univ. Press, 1989)
- G.루카치, 소설의 이론(반성완 역, 심설당, 1985)
- G.루카치, 영혼과 형식(반성완·심희섭 역, 심설당, 1988)
- 마르크스·엥겔스, 마르크스 엥겔스의 문학예술론(김영기 역, 논장, 1989)
- A.Milner, *Literature, Culture, and Society*(NewYork Univ.Press, 1996)
- F.Moretti, *The Way of the World*(Verso, 1987)
- F.Moretti, *Atlas of The European Novel*(Verso, 1998)
- D.L.Patey, *Probability and Literary Form*(Cambridge Univ.Press, 1984)
- E.W.Soja, *Postmodern Geographies*(Verso, 1989)
- J.Storey, *Cultural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Arnold, 1999)
- M.Woodmansee, M.Osteen(eds.), *The New Economic Criticism*(Routledge, 1999)

Abstract

A Study of The Intertextual Imagination in Chae Man-Sik's Works

Hwang Kook-Myou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imaginations in Chae Man-Sik's Work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

1. Through the economic imagination, Chae Man-sik comes to describe the desire of the money and the body to consume .
2. Through the allusive imagination, he alludes Prometheus, Quixote, Hamlet. Because the promethean resistance is really impossible, he discloses quixotic madness and spiritual agony. Through the ironic discourse based upon oppositional meaning, he accentuates the mediation of knowledge and comes to arrive at perfectionism.
3. The generational(numerical) imagination based upon the concepts of the generation and number, he discloses the belief about the third generation and hopes the future of child.